

'영암사랑카드' 운영 업무협약 체결

영암군,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상품권 도입 시간·비용 절감해 건전한 상품권 유통 기대

영암군은 지난 17일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영암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영암사랑카드 제작 및 발행을 위한 상호업무 협의와 결제 수단 다양화, 영암사랑상품권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카드 상품권이 도입되면 판매점 방문없이 구입과 결제가 가능하고, 상품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등록된 가맹점 호환으로 별도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구입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류상품권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이 기대된다. 영암사랑카드는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CHAK:작)을 통해서도 카드 발급과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크카드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가 이뤄진다.

영암군은 지난해 군 재난지원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농업인공익수당,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 등 각종 보편적복지수당 211억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2021년 현재 200억원의 일반발행과 군재난지원금, 농업인공익수당 등 121억원의 정책발행으로 총 321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5월 현재 212억원을 판매하였다.

군은 2009년부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년7월에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 및



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영암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여 현재 지류형과 모바일상품권을 운영중에 있으며, 1,625개소의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등록되어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암=조대호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오늘 개관

목포 고하도에 건립...수장·연구, 전시·교육, 야외체험 등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류태철)이 21일 공식 개관한다.

목포시 고하도에 위치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은 흥정기 환경부차관, 김종식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개관식을 개최한다.

부지 9만4,116㎡, 연면적 9,870㎡ 규모인 자원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됐으며 수장·연구시설, 행정지원시설, 전시·교육시설, 야외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0년 9월 목포 건립이 결정된 자원관은 2016년 건립 부지가 남향에서 고하도로 변경된 뒤 이후 2018년 3월에 착공해 건립공사가 진행됐고, 2019년 11월 준공을 마치고 개관을 준비해왔다.

자원관은 동식물 표본, 유전자원 등 350만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수장시설과 다

양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서,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조사·발굴과 생물자원 유용성 검증 및 산업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도서생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체험실, 해양생물·포유류 등 500여종 1,000여 점을 전시하는 상설전시실 등을 운영해 교육공간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인근의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목화체험장 등과 함께 고하도 관광에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종식 시장은 "전문적인 연구를 펼치면서, 전시와 체험도 운영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환영한다. 자원관이 고하도의 기존 시설과 시너지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함평 지역농협, 청년 정규직 채용 선순환

함평군은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유통활동가사업)'에 참여한 지역 농협이 사업 종료 후 참여 청년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마련된 농수산유통활동가사업은 지역 농·수·축협, 로컬푸드 등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하고 최장 2년간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유통활동가 전문인력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함평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함평농협 등 4개의 사업장이 사업에 참여해 지역 청년 6명을 채용했다.

그중 함평농협은 지난달로 지원이 종료된 참여 청년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농수산 유통전문가 양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함평전지농협 또한 2명의 참여 청년 중 1명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고용과 청년의 지역 정착에 일조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군, 건설자재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앞장

신안군은 목포시에서 발생한 폐점도블럭을 공원조성에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뿐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안군은 2020년도부터 목포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 보도블럭 150톤을 제공받아 수석미술관·조계박물관 등 개장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1004 뮤지엄파크'의 매화정원, 새우관 준락지, 바다휴양숲 산책로 등에 재활용함으로써 보다 정감있고 고풍

스러운 정원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구입비 약 3천6백만원의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로 1석 3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폐점도블럭으로 바다포장 뿐만 아니라 앉음 벽까지 설치한 매화정원에 폐기처분에 놓여있던 50년생 매화나무 80여주를 기증받아 식재함으로써 새로운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큰 호평을 받고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마을주민 대상 건강걷기 동아리 운영

무안군은 지난 4월부터 관내 10개 마을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11호 자가용으로 생활터 건강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11호 자가용이란 자동차가 아닌 건강한 두 다리를 의미하며,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심장병, 뇌졸중, 비만 위험을 줄여주고 인지기능과 면역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운동이다.

군 보건소는 마을주민 공원길, 마을안길, 농로길 등을 걷기코스로 지정하고 마을 건강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 2~4회 실시되는 걷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설현장 점검

홍농읍·대마면 건설현장 방문...코로나 방역준·건설시공 당부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중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영광군이 지역의 발전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상향식·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

영광군은 홍농읍과 대마면에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건설현장을 지난 17일에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홍농읍 농촌중심지 사업은 4,075㎡ 부지에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 커뮤니티센터 1,050㎡ 규모로 올해 6월 준공예정이며, 대마면 농촌중심지 사업은 6,019㎡ 부지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복지회관 증축 535㎡ 규모로

원사업이었던 △커뮤니티센터 △공중목욕장 △포켓주차장 사업이 추진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공사중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한 건설현장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